

# 고양 사랑방

고양시민 및 소식지 독자분들의  
소중한 의견에  
더 귀 기울이겠습니다!

## 시민의 소중한 원고를 기다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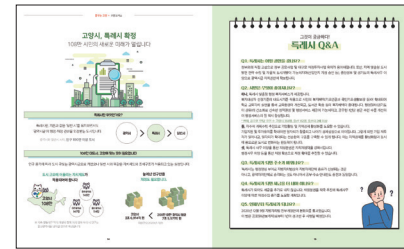
- **원고종류**  
수필·공트·체험수기·기행문·독후감·사진·만화 등 제한 없음
- **원고분량**  
A4 용지 1장 이내(시·만화 등은 적정 분량)
- **원고마감**  
수시 접수  
\* 채택되신 분은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보낼 곳**  
10460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주교동) 고양시 언론홍보담당관실 <고양소식> 담당자
- **E-mail** gysosic@korea.kr
- **고양시청 홈페이지**  
www.goyang.go.kr (늘푸른고양/시정소식지)
-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yangcity

## 1 월 호 독 자 후 기



### 김태윤(고양시 덕양구)

고봉누리길 안심위치 표지판을 보며, 책에서 보는 등산길이 마치 나를 안내해주는 것 같아 행복했습니다.



### 노현정(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시 특례시 확정 소식을 현수막을 보고 알게 되었는데, 어떤 점이 바뀌는지에 대해 알려주어 유익했습니다.



### 정지오(고양시 일산동구)

청소년정책제안대회에서 수상한 청소년들의 인터뷰를 보며,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강경숙(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시 안심콜 출입관리 시스템 덕분에 어디를 가도 간편하게 인증을 받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 문 장 의 신 당 침 자

### 김고운

희망찬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계획하신 일들 소원성취하시고 건강관리 수칙 준수하여 코로나 19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 안현선

코로나19 때문에 희망을 품을 수 없다고요? 아닙니다. 2019년에 세웠던 2020년의 계획처럼, 2021년의 새해에도 변함없이 희망찬 계획을 세워봅시다. 여러분, 모두 건강한 2021년을 만들어요!

# 고봉산

김승배

구름도 건 듯 머흐는 고봉이요  
거슬러 올라 보면 과시 태미\*로다  
동해물에 마른 목 적시고 단숨에 뛰어오른 삼각산에  
거침없이 타오르는 햇덩어리 눈부시어라

해 가는 길목 따라 남녘에 이르러  
덕양 산정 드높이 우러르니

지친 의병들 밥 먹이고 옷 지어가며  
다 해진 앞치마 펼치어 돌 나르던 정절의 혼백  
가물가물 행주치맛자락 오늘은 가슴 속에  
나부끼는 깃발이 되어 무량으로 펼쳐이느니,  
누가 무지한 삭풍을 두려워하라  
두 눈 부릅뜬 장사바위 시퍼런 서슬 앞에

낮이면 푸지게 눈발 갈아 자식들 배 불리고  
잘 익은 자두 빛 오늘 흐르는 한강 위에  
굽은 허리 돌아누우면 포동한 젓살 다사롭게 어우르며  
내일을 헤는 풍요로운 고양의 들녘이더라

우리 아버지 땀감 하러 오르신던 구름들이  
겨운 어깨를 보듬어 주고  
우리 어머니 시린 손 호호 불어 빨래하시던  
시냇물 소리 아득하게 막힌 낫불 씻어 내리는데  
개구쟁이 아기들은 개나리 꽃망울만 한 꿈들을  
힘차게 날리며 뛰어노는 신나는 나라, 고봉산

\*태미: 예전에는 고봉산을 태미산(꼬리가 긴 산)이라 불렀다.

그 어리던 정기 시나브로 맺히고 영글어  
더없이 푸르디 푸르건만  
뉘러서 산자락 베어내어 하늘 찢러대는 아파트 숲으로  
담장을 둘러치고 바람 길마저 가로막아  
휘이 휘이 햇살 쫓아내려 하느냐  
누가 산새들의 고운 울음에 재갈을 물리어  
웅색한 세상이라 닷만 하는가

푸른 물 푸른 산이 우리의 목숨인 것을  
푸른 산 푸른 물이 고양의 생명줄인 것을

바라만 보아도 스스로 자라나  
우리네 가슴 가슴마다  
속찬 사람 가득 채워주는 산  
푸르디 푸른 고봉산 기슭 아래 더불어  
베개를 높이 괴어도 좋으리